



2012 다보스포럼

<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 >

- 금번 포럼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극복 방안으로 4가지 새로운 모델이 제시됨
 - (성장과 고용 모델) 인재주의 도입 및 기업의 창의적 혁신으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
 - (리더십과 혁신 모델) 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수용하고 교감하는 혁신적인 리더십 필요
 - (지속가능성과 자원 모델) 효율적인 자원 통합관리 방안 및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모델 추구
 - (사회·기술적 모델) 디지털 시대에 ‘빅 데이터’의 역할 증대로 이에 대한 활용 극대화가 중요
- 기업은 위기극복을 위해 인재주의(Talentism)를 강화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비즈니스 리더십을 확충하는 한편, 초연결사회에 대비한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

1. 2012 다보스포럼 개요

□ 금년 포럼의 최대 화두는 '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의 모색'

- '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'이라는 주제로, 최근 불거진 자본주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글로벌 리더들이 4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해법 제시를 못했기 때문
 - 포럼 창립자 Klaus Schwab 회장은 "이번 포럼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, 전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."고 제안
- 금번 포럼에서 유로존 재정위기, 서구 자본주의 한계, 리더십 부재 등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4가지 새로운 모델을 제시



<디스토피아(Dystopia)>

- 유토피아(Utopia)의 반대 개념으로, 인간소외가 극점까지 달한 부정적인 모델로 인간의 삶과 질서를 부정한 불행한 사회를 의미

2. 다보스포럼의 해법: 4가지 새로운 모델

(1) 성장과 고용 모델(Growth and Employment Models)

□ 위기의 서구 자본주의 대안으로 인재주의(Talentism) 도입 역설

- 기업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인재(talent)의 부족은 성장의 최대 위험요소
 -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1,258명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, 응답자의 53%가 향후 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'인재 부족'을 지적

- 기업은 개인 및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생산 요소인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
 - 기업의 경쟁력은 핵심인재의 확보·육성·유지에 좌우되며,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·보상을 위한 열린 조직문화로의 전환이 요구됨
 -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기업은 젊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

□ 기업은 혁신과 글로벌 차원의 창조적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

- 창의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기업 성장 강조
 - 혁신은 수준 높은 과학적 연구보다는 개인의 창의성에 의해 추진됨
 - ‘창조적 일터’를 통해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
- 글로벌 관점에서 수요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
 - 글로벌 위기 지속에 따른 선진국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 시장의 수요 확대 및 글로벌 우수 인력 확보 강화
- 향후 신흥국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
 - 서구의 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해 볼 때, 신흥국은 내수 위주의 균형 성장 모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
 - 신흥국의 내수 활성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초산업 분야 등에 대한 수출 증대 및 적극적 진출로 일자리 창출

□ 금번 포럼에서 기업과 국가의 단기 고용 창출 방안을 제시

- 기업은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대규모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
 - 세계 청년 실업률은 2010년 12.6%였고, 한국은 2011년 청년실업률이 7.7%이며, 구직단념자도 연평균 7.4%씩 증가하고 있고, 취업준비자도 연평균 7.4%로 증가 추세
 - 인턴십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구직시장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기술, 기업 문화, 비즈니스 태도 등을 학습할 기회 제공
- 국가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고, 신규 비즈니스 및 기존 사업체의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
 - 고용 및 해고가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동법 및 이민법을 개정하고,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개선에 기여
 -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기존 업체들의 고용 증대 장려

(2) 리더십과 혁신 모델 (Leadership and Innovation Models)

□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수용하고 교감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

- 가속화되는 커뮤니케이션과 방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동시에 사회와 소통하는 혁신적인 리더십 요구
 - IT 등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부각
 - Johanna Mair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“혁신이란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데서 이루어진다.”고 언급
 - 혁신적인 리더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판단이 가능
- 따라서 혁신적인 리더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사회 각층의 니즈를 반영해야 함
 - 트위터,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네티즌 및 주주로부터 사랑 받는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
 - 글로벌 기업 리더들은 각 나라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각에서 사업을 추구
- 정부의 정책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역할 부각
 -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 기업들의 리더십 및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십 관계 수립 추구
 - 기업들도 정부와 상호 협력하여 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방향 설정

□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가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

- 유로존 내 각국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 결여로 획기적인 위기 극복 방안 도출에 난항
 - Peter Sutherland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글로벌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국가 간 무역 전쟁도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진단
 -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“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는 나약한 리더십이 문제”라고 지적
- 자본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부 간 협력이 가능한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진 기구 설립이 요구됨
 - 특히 금변 위기의 근원지인 유럽 지역 정상들은 EU가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구조를 도출하는 노력을 해야 함

< 유로존 재정위기의 현황 및 해법 >

□ 위기 해결 난항 예상 속 '성장' 해법 제기

- 유로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확산
 - 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는 “그리스가 1년 내에 유로존을 탈퇴하고 포르투갈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”고 지적
 - 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“유럽의 금융시스템이 단일통화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”고 우려
 - Martin Wolf FT 칼럼니스트는 “재정긴축에 치중하고 있는 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물가 안정에 치중하는 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(ECB) 총재 두 사람으로는 유럽을 살리지 못할 것임”을 강조
- 위기 해법을 ‘긴축’이 아닌 ‘성장’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 고조
 - ECB가 통화정책 완화로 유럽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화됨.
 - Roubini 교수는 “ECB가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”임을 강조
 - Cameron 총리도 “긴축 정책과 함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”고 언급

□ WEF가 제시한 재정위기 해결의 세 가지 모델

- **Model 1: 유로존 부채 처리**
 - 단기적으로 그리스 국가부채 조정 및 국가부채에 노출된 유럽은행 부채 조정
 - 중장기적으로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 제공
- **Model 2: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**
 - “ECB의 저금리 유동성 공급 → 민간 은행들 각국 장기채권 매입”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자금이 순환되고 수요 진작
- **Model 3: 체계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 확보로 금융기관 리스크 축소**
 -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EFSF(유럽재정안정기금) 등을 통한 지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리스크 축소

(3) 지속가능성과 자원 모델(Sustainability and Resource Models)

□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지속가능 모델 제시

- 정부 주도 글로벌 거버넌스는 저탄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의 실패와 기후변화 심화로 한계점에 도달
 - 2011년 UN 더반회의는 주요국간 대립으로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실패하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로 식량, 물,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 증가
-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국가 및 계층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포함하는 거버넌스 모델 제시
 - 선진국-개도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와 계층간 소득격차 문제를 조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 요구

□ 지역이해를 반영하고 NGO 협력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자원통합 관리 방안 모색

- 자원 및 인프라 개발,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
 - 과거 기업들은 자원국 정부 채널만 고려하면 됐지만,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협력 및 지원 유무가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
 - 최근 아프리카 정부들은 자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지역사회에 재환원하는 시스템을 요구
- NGO-기업 파트너십 구축도 효율적 자원관리 방안으로 대두
 - NGO가 자원개발 등 환경이슈에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업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더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

□ 특히 희소자원 및 공유자원 관리를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의 역할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

- 저탄소 및 친환경기술이 다른 희소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해결 필요
 -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로 리튬, 마그네슘 등 희소자원이 고갈되는 상충 문제가 발생
- 수자원 등 공유자원의 무절제한 낭비로 자원제약 필요성 증대
 - 향후 15년 내 전 세계 인구의 30~40%가 물 부족에 직면할 위험에 노출
- 정부 보조금의 축소 등을 통해 자원소비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
 - 2012년 6월 개최 예정인 Rio+20(유엔환경개발회의) 회의에서 자원소비를 제한할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철폐 방안이 논의될 예정

(4) 사회·기술적 모델(Social and Technological Models)

□ 급속한 디지털화 진전이 인간사회에 번영과 위험을 동시에 제공

- 디지털 혁명이 인류사회에 혜택을 주면서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 세계로 진화하고 있고, IT기술은 글로벌 번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
- 소셜미디어와 IT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‘초연결사회’와 관련된 리스크들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
 - 소셜미디어에 의해 사회불안과 사이버 범죄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,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, 투명성을 보장하는 사회규범이 필요
 - Lee Howell 세계경제포럼 사무국장은 초연결사회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위험성을 경고하였고, Rod Beckstrom 국제인터넷기구 사무총장은 해킹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

<초연결사회(Hyperconnectivity)>

- 캐나다 사회과학자 Anabel Quan-Haase와 Barry Wellman이 만든 신조어로, 소셜미디어 및 IT 혁명으로 사람과 사람, 사람과 단말기, 단말기와 단말기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메일, 클라우드,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

□ 디지털 시대에 ‘빅 데이터’의 활용 극대화가 중요

- 기업의 무한경쟁, 과학기술의 거대화화 융복합화 가속, 삶의 질적 향상 요구, 고용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에 ‘빅 데이터’가 강력한 도구로 등장
 - 새로운 ‘자산’으로서 ‘빅 데이터’를 인식하고, 수집 분석을 위해 컴퓨팅 파워, 소프트웨어, 정보분석모델,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 수반이 필요
- 빅 데이터 분석력으로 상황을 예측하고 기초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디지털 정보 홍수시대의 생존전략임을 강조
 - 엄청난 양과 속도로 데이터가 발생·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분석력이 곧 경쟁력임

<빅 데이터(Big Data)>

-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, 저장, 관리,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방대한 용량의 data set으로, 실시간 다양한 데이터의 폭증을 의미

□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기술적 모델이 필요

-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델이 필요하며,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공동협력이 긴요

3. 포럼 평가와 시사점

-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정부의 역할 및 적극적 시장 개입이 부각되었으며, 자본주의 4.0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없이 큰 정부로의 회귀론이 무성
 - 포퓰리즘적 정책 확산, 대기업 규제,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 확대에 대비, 정부·사회와 적극적 소통 채널 유지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점검
-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신속하고 획기적인 국제 공조를 촉구
 - 독일의 요구대로 재정 긴축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성장과 함께 유로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재정안정기금 확대, 대규모 유동성 공급, 국채매입 보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
- 인재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‘뉴 비즈니스 리더십’이 요구됨
 - 뉴 비즈니스 리더십은 신세대(post-1980)와 소통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 교감형 기업가정신(spiritual entrepreneurship)을 소유
 - 전통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 범주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생 경영 추구 필요
- ‘창의성’에 기반한 생산성 증대와 고용 창출로 사회현안을 해소
 - ‘창조적 일터’ 조성으로 개인·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청년실업 해소, 여성 및 고령인력 활용으로 고용 창출에 일조
- 기후협약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로 당분간 국별 지역별 입장 대립이 예상되므로 해외자원 개발 시 개도국의 입장 반영과 탄소 및 오염 저감형 접근이 필요
 - 국내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, 해외 진출 시 지역별 상황을 이해하고 진출대상국 정부와의 파트너십으로 지역 인프라 건설 및 경제 활동에 일조

작성자: 사동철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위원(dsa@posri.re.kr)
 고준형 동향분석실 실장(jgoh@posri.re.kr)
 윤재호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위원(jhyoon@posri.re.kr)
 현석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(kyotohyun@posri.re.kr)
 유지호 동향분석실 초빙연구원(kitanjiho@posri.re.kr)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
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.